도교육청, 식생활관 작업환경 실태조사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11월 초까지 작업환경측정 실시... 열악한 환경의 식생활관 20개교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식생활관 작업환경 실태조사에 나섰다.

12일 도교육청은 다음달 초까지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열악한 환경의 조리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식생활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타 시도 교육청의 조리종사원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식생활관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식생활관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작업환경측정은 노 · 사 협의체 합의 결과를 토대로 표본조사 대상 학교 20개교를 선정,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인자 11종 선정, 측정 방법, 노조 참여 등 세부 추진방법이 결정돼 추진된다.

측정 방법은 튀김, 전을 부치는 조리작업과 급식기구 세척 작업을 위주로 조리종사원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료 채취와 작업장을 측정하는 지역시료 채취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유해인자를 채취해 분석 · 평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식생활관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식생활관 작업환경측정으로 급식종사원의 작업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작업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 증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수자원공사 물 빅데이터 공모전 '우수상'

전북대 전자공학부 학생들, 웹크롤링으로 물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전북대학교 학술동아리 학생들이 최근 열린 2021 대국민 물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우수상인 K-WATER 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의 주인공은 이 대학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Display Your Dream(DYD)'팀의 이정재, 김소진, 성예림, 임진빈 학생이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8월 한전 KDN에서 주최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 빅데이터와 4차산업 기술의 융합을 통한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물 빅데이터와 AI의 융합을 통한 인사이트 창출이 공모 주제였다.

DYD팀은 이번 공모전에서 '코로나로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따른 물 수요량 예측' 기술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 물 수요량 예측을 통해 물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줄여 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이를 위해 웹 크롤링을 이용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파악, 시계열 분석과 다중 다항 회귀분석법을 사용해 물 수요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공모전에 참여한 이정재 학생은 "처음 참가하는 빅데이터 공모전이라 주제 선정부터 코딩까지 쉬운 과정이 없었지만, 팀원들과 토론하고 협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아서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DYD(회장 김석기, 지도교수 이지훈)는 2019년 3월 공대 전공 동아리로 창립된 이래 그간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에서 17차례나 학생 입상 실적을 올리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일 부터 총파업 선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맞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오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차별의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조합원들의 기대도 높다. 높은 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대비 83.7%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확인됐다. 연대회의는 10만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

한편, 연대회의는 총파업 전이라도 교섭을 열어 타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 ·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공동공약화하자"

천호성 교육감 출마예정자, 민주진보 후보 공약 채택 제안지자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제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목표로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진보 전북교육감 후보자로 함께 하고 있는 차상철 · 이항근 출마예정자에게 '학생 ·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공동공약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국 최초 시행되는 제도로서, 단발성이 아닌 제도화해서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생애주기별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맞춤 복지는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 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실험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지역소멸로 인한 학교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각 분야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교육청이 먼저 나서 학생 · 청소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자체와 협력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 뒤 지원 금액을 상향시키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전북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약 20 만 명에게 일 년에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395억원이 소요된다.

2021년 전북 교육예산 총 규모는 3조4250억이고 이중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교육복지지원비(3425억), 교육일반 및 예비비(1399억) 등에서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의 사례처럼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면 소요금액은 약 1185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이는 지자체와 함께 교육협력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할 수도 있고, 향후 지급금액을 추가로 늘려가거나 연령대별로 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전북의 기초, 광역 지자체장을 꿈꾸는 예비후보들과 만남을 가져, 그 자리에서 학생 · 청소년기본수당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공약화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우석 커리어 업! 서포터즈' 발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12일 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제11기 우석 커리어 업!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1기 서포터즈로 위촉된 황승준(전기전자공학과 1년) 학생 외 4명은 내년 2월 말까지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교내 · 외 진로취업 프로그램과 정부 청년고용정책 및 청년 취 · 창업 관련 시책 등을 SNS 중심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진로취업 프로그램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승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발대식에서 "우리 서포터즈들이 각자의 끼와 재능을 접목해 교내 · 외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일자리본부는 서포터즈 학생들과 월 1회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칠보농협 조합장 권혁빈
순정축협 조합장 고창인
황토현농협 조합장 김재기
태인농협 조합장 한상곤
정읍원협 조합장 이대건
샘골농협 조합장 허수종
신태인농협 조합장 김성주
정읍시지부 지부장 이용균